

법인 구조조정 의 새 선택지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단은 크게 법적 절차(회생)와 사적 절차(워크아웃·자율협약)로 나뉜다. 법적 절차는 강제력이 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적 절차는 유연하지만 전체 채권자를 구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며 구조조정 실무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Pre-ARS(예방적 구조조정)는 회생신청 자체를 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다. 법원의 민사 조정절차를 활용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의 구조조정지원약정(RSA)과 일본의 채무부제협정조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회생신청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거래처 이탈 등 이른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다만 회생신청 전 단계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없어, 일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가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다

는 한계가 있다. 합의에 이르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며, 합의가 결렬되면 회생절차·워크아웃·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유보한 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상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의 보호막 아래 협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적 절차보다 실효성이 높다. 협상이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고, 결렬되면 곧바로 회생절차로 전환된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AR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채무조정 협상은 주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이다. 2025년 5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워크아웃 협상에 집중할 수 있다. 협상이 성공하면 회생신청은 취해지고, 워크아웃이 실패하더라도 이미 회생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P플랜)을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게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P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여기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한 요건이며,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신청 전 주요 채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가에 필요한 동의까지 미리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의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과 유사한 구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회생절차의 성격은 갖는다.

이처럼 ARS → 하이브리드 → P플랜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은 기업의 재무 상황, 채권자 구성, 협상 가능성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조조정 실무에서는 이 제도들을 단계적·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바른법무법인

‘참교육’이 통쾌한 이유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으로 무너진 학교에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투입돼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실이 아닌 드라마에서 해답을 찾는다. 절차를 건너뛰고, 가해자를 단번에 응징하고, 피해자를 즉시 구해내는 장면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법과 제도보다 한 사람의 강한 권한이 더 빠르고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위협하지만, 현실이 답답할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물론 현실의 학교는 드라마처럼 움직일 수

없다. 누군가의 사적 응징으로 정의를 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학교가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과 소송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는 현실도 정상적인 교육 현장의 모습은 아니다. 학교는 질서를 세워야 하는 공간인데, 정작 질서를 세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요즘 학교 관련 뉴스는 대개 한 지점으로 모인다. 학교가 제때 막지 못하고, 피해자는 늦게 보호받았으며, 교사는 혼자 남았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생활지도 갈등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남긴다. 학교는 지금 학생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

교총 등 교원단체가 반복해 요구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사에게 생활지도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도 행위를 보호하고 학교가 문제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 단위 조직을 만드는 대신 소규모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으며, 조직 신설이 어려울 경우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가 전담 기능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교권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읽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교 밖 '참교육'이 통쾌하게 소비되기 전에 학교 안에서 문제를 제때 막고 바로잡을 힘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에게 책임만 묻고 권한은 주지 않는 구조, 피해자가 보호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절차, 학교가 민원과 소송 앞에서 물러서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참교육'은 현실 교육에 대한 가장 뼈아픈 풍자로 남을 것이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9일 (음 5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0년생 현재의 바라는 것은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72년생 다투면 서로간에 이익이 없겠습니다. 84년생 여행을 떠났던 길입니다.



49년생 여기저기서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61년생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73년생 뜻한 바대로 착실하게 살아가세요. 85년생 사업을 너무 크게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50년생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마세요. 62년생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4년생 능력과 실력이 안정될 것입니다. 86년생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51년생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63년생 타인이 나를 가까이 도와 주려고 합니다. 75년생 주위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하세요. 87년생 더욱 의욕적으로 일에 임하세요.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88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53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65년생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89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5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6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90년생 뒷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55년생 뒷물이 많으면 앞물이 맑습니다. 67년생 비교적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 지겠습니다. 91년생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68년생 짝퉁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더욱 길합니다.



57년생 어려운 임무를 새롭게 맞게 됩니다. 69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81년생 좋은 결실이 맺어질 때입니다. 93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58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0년생 명예와 부가 함께 따르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 이겠습니다. 94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잘 이겨냅니다.



59년생 병이 들면 치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71년생 병들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키세요. 83년생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온다 했습니다. 95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진정한 승리

'피로스의 승리'라는 것이 있다. 승리는 했으나 너무나 큰 희생을 초래하였기에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말할 때 쓰는 경우다. 고대 그리스의 한 작은 나라였던 에페이로스 왕국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기원전 279년 아스쿨룸 전투에서 로마인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그는 힘겹게 승리는 하였으나 자신의 군대를 크게 잃어 결국 더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물러난다. 승리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 결국에는 패배를 안길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로마는 비록 전쟁에서 지기는 하였으나 피로스왕에 비해 역량이 남아있었기에 전쟁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다. 쟁지만 회복이 가능했던 얘기다.

이런 면에서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말하길, "천하가 어지러울 때 5만을 싸워 이긴 나라는 결국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고, 4만 만에 이긴 나라는 피폐해질 것이며, 3만 만에 이긴 나라는 패자(霸者)가 되고, 2만 만에 이긴 나라는 왕(王)이 될 것이며, 한 번에 이긴 나라는 황제(帝)가 되리" 라고 했다. 여러 번 이겨서 천하를 손에 넣은 자는 드물고 오히려 망한 자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물질적 자원의 고갈은 그렇다치고 소중한 인명이 살상되니 인적 손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손자는 또 한 번 강조하기를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최상은 병력으로 적의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음은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고, 그다음은 적의 병사를 깨는 것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다." 외화내인의 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 주역에서는 이를 일러 '화산려(火山旅)'라 하였다.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를 경계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